

絡脈의 概念과 十五絡脈의 성립과 구성에 대한 象數學的 고찰

계강윤 · 김병수*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Study on the Concept of Collaterals and Asian Symbolic-mathematical Consideration of Formation and Composition of Fifteen Main Collaterals

Kang Yoon Kye, Byoung 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The meridian theory(經絡學說) is one of the important Korean medical theories distinguishing it from western medicine. The meridian theory(經絡學說) can be divided broadly into meridians(經脈) and collaterals(絡脈). The studies on meridians(經脈) have been relatively advanced, but the studies on the collaterals(絡脈) has not been enough progressed so far. Fifteen main collaterals(十五絡脈) are the biggest and most important part of collaterals(絡脈). Unlike other collateral(絡脈), fifteen main collaterals(十五絡脈) have certain routes and their own collateral acupoints(絡穴). So we studied the structure of collateral(絡脈) mainly on fifteen main collaterals(十五絡脈). In addition, we searched the Asian symbolic-mathematical(象數學的) meaning of the fifteen main collaterals(十五絡脈) and newly described them. As a result, the concept of collaterals(絡脈) has been created by the accumulation of clinical experience later than that of meridians(經脈), and it has been formed while the meridian theory(經絡學說) were developed. The meaning of 'fifteen' in fifteen main collaterals(十五絡脈) could be analysed in three ways based on the result of symbolic-mathematical(象數學的) study. According to those results, we could find that the structure of fifteen main collaterals(十五絡脈) in 『Internal Classic(內經)』 was accurate.

keywords : Collaterals(絡脈), Fifteen main collaterals(十五絡脈), Asian symbolic-mathematics(象數學)

서 론

經絡學說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서양의학과 차별되는 한의학의 핵심 이론 중 하나이다. 또한 현대 한의학의 임상에 있어서도 침구치료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다. 經絡은 크게 經脈과 絡脈으로 구분¹⁾할 수 있다. 이들 중 經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이 진행되었으나, 絡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絡脈이란 經脈에서 분출하여 斜行하는 支脈²⁾으로 알려져 있고, 十五絡脈, 絡脈, 孫絡, 浮絡 및 血絡이 있다. 그중 十五絡脈이란 각 經脈의 絡穴에서 갈라져 나온 十二絡脈, 그리고 任脈과 督脈의 絡脈, 脾의 大絡을 합하여 일컫는 말로, 絡脈의 주체이자 經脈에서 바로 갈라져 絡脈 중 가장 큰 가지에 해당하므로 통상 十五大絡이라고도 한다³⁾. 일반적으로 絡脈은 體表에 分布하여 일정한 순행노선이 없으나, 十五絡脈은 일정한 순행노선이 있고 해당하는 經穴인 絡穴이 존재한다⁴⁾.

한편 마왕퇴 의서 출토 이후 경락학설이 성립되는 과정에 易

학이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전국 시대의 道家 사상가들이 전개한 陰陽論은 儒家에 의해서 『易』의 해석에 적용되어 곧 사상과 학문의 세계에 공유되는 보편적인 철학이 되었고, 巢托 의사가 증명한 대로 의사들 또한 이를 단서로 해서 그 지식을 체계화하며 이론을 모색⁵⁾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易의 사상은 크게 '義理易'과 '象數易'으로 대별⁶⁾되는데, 象數易⁷⁾은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여 인체의 이치를 파악하고자 했던 고대의 과학적 방법론⁸⁾이다.

이에 필자는 絡脈의 성립과 구조를 十五絡脈을 중심으로 연구하였고, 또한 十五絡脈에서 '十五'가 갖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 象數學적으로 고찰하였다. 그 결과 '十五絡脈의 구성 經脈과 '胃之大絡을 포함시켜 十六絡脈으로 볼 것인가?' 등 絡脈에 대한 문헌상의 이견에 대해서도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론

1. 絡脈의 분류

絡脈은 十五絡脈, 絡脈, 孫絡, 浮絡과 血絡으로 분류한다. 絡

* Corresponding author

Byoung Soo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Daejeon 300-716, Republic of Korea

E-mail : kbs0025@dju.kr · Tel : +82-42-280-2627

Received : 2017/06/12 · Revised : 2017/10/19 · Accepted : 2017/10/23

© The Society of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The Physiological Society of Korean Medicine

pISSN 1738-7698 eISSN 2288-2529 http://dx.doi.org/10.15188/kjopp.2017.10.31.5.247

Available online at https://kmpath.jams.or.kr

脈, 孫絡, 浮絡과 血絡은 十五絡脈에서 分出하는 支脈이다. 十五絡脈에서 分出的 支別을 일반적으로 絡脈으로 통칭하고, 絡脈의 細小分支를 孫絡이라 칭한다. 피부의 표층에 浮現하여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을 浮絡이라고 하며, 浮絡 가운데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작은 혈관을 血絡이라 한다⁹⁾. 十五絡脈은 서론에서 언급한 대로 絡脈의 주체이자 絡脈 중 가장 큰 가지에 해당하므로 통상 十五大絡이라고도 한다¹⁰⁾.

2. 十五絡脈의 성립

1) 十五絡脈의 형성시기

『靈樞』에서 十五絡脈을 설명할 때 經脈의 개념을 분명히 언급하였기 때문에 絡脈學說의 탄생은 마땅히 經脈學說보다 늦다¹¹⁾고 보아야 한다. 『靈樞·經脈篇』에 “手太陰之別 …… 別走陽明也. 手少陰之別 …… 別走太陽也. 手心主之別 …… 別走少陽. 手太陽之別 …… 內注少陰. 手陽明之別 …… 別入太陰. 手少陽之別 …… 合心主. 足太陽之別 …… 別走少陰. 足少陽之別 …… 別走厥陰. 足陽明之別 …… 別走太陰. 足太陰之別 …… 別走陽明. 足少陰之別 …… 別走太陽. 足厥陰之別 …… 別走少陽. 任脈之別 …… 督脈之別 …… 別走太陽. 脾之大絡 …… 出淵腋下三寸¹²⁾.”라고 하여 十五絡脈을 설명한 부분이 처음 제시되었다.

위의 十五絡脈을 살펴보면 대부분 ‘別走’하여 表裏經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手少陽經의 絡脈은 ‘合’하여 表裏經과의 관계를 맺고 있고, 任·督脈의 絡脈과 脾之大絡의 경우 表裏經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는 없으나 그 출발점이 經脈穴과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督脈은 太陽으로 ‘別走’하고 있다. 이는 十五絡脈이 형성될 때 이미 十二經脈과 任·督脈의 개념이 존재 했기에 가능한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즉 十五絡脈의 형성 시기는 十二經脈의 형성 시기보다 늦다고 사료된다.

2) 絡脈의 발생과정 추론

經絡學說은 처음부터 현재와 같은 체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라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형성된 것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그 내용을 개략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李¹³⁾는 ‘처음에는 壓通點 즉 현재의 阿是穴과 같은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후 ‘일정한 부위의 經穴이 그 부위의 痛症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疾患까지도 효과가 있는 것을 인지’하였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일정한 疾患에 같은 효과를 나타내며, 疾病의 발생 및 治療에도 관여’한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라 하였다. 따라서 ‘서로 연관된 穴位를 하나의 선으로 연결하여 經脈개념이 탄생’ 하였을 것으로 추론한다. 『內經』에 이르러서 현재와 같은 체계가 거의 잡혔다고 볼 수 있다.

黃¹⁴⁾도 經絡學說의 정수는 인체의 특정한 부위 사이에 특정한 계 연계된 규율에 있으며, 이러한 규율의 발견은 주로 대량의 임상 경험의 축적에 기초하여 수립되었다고 하였다. 經絡學說의 한 부분인 絡脈學說도 마찬가지로 인체 상하의 특정한 부위 사이의 특정한 연계 규율이고, 이는 임상실천에 따라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絡脈의 발생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먼저 四肢肘膝 以下에 나타나는 絡脈의 형태변화와 일정한 부위에 病證이 발생하는 것과는 모종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絡脈을 진단하는 것도 임상에서 상용한 일종의 診脈法이었다. 이러한 병증에 대해서 그 絡脈에 직접 刺灸하였고, 나중에 刺灸하는 絡點이 변천하여 ‘絡穴’이 되었다. 四肢에 絡脈을 진단하고 刺灸하는 부위와 병증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가장 먼 부위를 서로 연결시켜 絡脈의 순행선이 형성되었다. 먼저 四肢部에 絡脈을 진단하고 刺灸하는 곳이 絡脈의 起點이 되고, 병증을 진단·치료하는 것은 자연히 絡脈의 後후가 되었다.”

질병에 걸린 신체를 정상적 몸이 변화된 상태라고 봤을 때, 옛 사람들은 증상의 변화뿐 아니라 인체를 관찰하여 다른 특이점, 변화점을 관찰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관찰 중 脈動과 피부의 色澤 변화 역시 발견했을 것이며, 脈動의 변화와 증상의 연계는 추후 經脈 개념으로, 체표에 나타나면서 박동하지 않는 脈의 변화와 증상의 연계는 絡脈으로 발달했다고 볼 수¹⁵⁾ 있다. 이처럼 絡脈의 순환 노선은 經脈學說을 설정한 방법과 동일하게 형성된 것이라 사료된다. 絡脈學說이 주로 四肢 淺部의 絡脈을 진찰하고 이 絡脈을 刺灸하는 것에 기초하여 발견한 인체 상하의 연계 규율이라면, 絡脈의 순행노선과 그 後후가 經脈과 상당히 중첩될 수 있었을 것이고, 나중에는 ‘絡穴’도 상응하는 經穴 속에 귀속되어 ‘經’과 ‘絡’의 밀접한 연계를 한층 강화하게 되었을 것이다. 즉 絡脈學說의 수립은 經脈의 체표연계를 완성시키기 위한 것¹⁶⁾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絡脈은 초기에 淺部의 絡脈인 血絡, 즉 현대적으로는 체표 정맥에 해당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독자적 노선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經脈의 노선과 後후와 중첩되어, 經絡學說이 지속적으로 발전되면서 經脈의 체표연계를 위해 그 역할이 經脈을 연락하는 ‘絡’의 의미로 나타난 것으로 추론된다.

3) 絡脈과 經脈의 차이

絡脈과 經脈의 차이점에 대해 『靈樞·經脈篇』에서는 ‘諸脈之浮而常見者, 皆絡脈也. …… 經脈者, 常不可見也, 其虛實也以氣口知

1)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종려나무; 2015. p. 49.

2)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종려나무; 2015. p. 88.

3)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75.

4) 김태한, 임운경. 十五絡脈의 종류와 분포특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2):29-38.

5) 야마다 케이. 중국 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2. p. 132.

6) 廖名春, 康學偉, 梁韋弦. 주역철학사. 서울: 예문서원; 1994. p. 47.

7) 이 논문에서는 ‘象數學’이라는 용어를 통해 ‘象數易에서 사용되는 圖書, 卦, 象, 數 등을 이용하여 자연과 인체를 이해하려는 학문적 노력과 태도’를 지칭하고자 한다. 다만 ‘象數學’은 아직 합의된 용어가 아니고, 기존 연구들에는 세밀한 구분 없이 ‘象數學’, ‘象數易’, ‘象數’, ‘數象’, ‘象數原理’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 용어의 정립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筆者註)

8) 상수의학회편집부. 길 잃은 한의학 지도를 찾다. 대전: 주민출판사; 2016. p. 4.

9)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종려나무; 2015. p. 88.

10)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75.

11)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590.

12) 金善編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70-174.

13)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33.

14)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354, 590, 591.

15)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243-245.

16)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588-595.

之, 脈之見者皆絡脈也¹⁷⁾.'라 하였다. 즉 피부에 보이는 脈을 絡脈이라 하였는데, 이는 마치 해부학의 체표 정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추가적으로 '諸絡脈皆不能經大節之間, 必行絕道而出, 入復合于皮中, 其會皆見于外, 故諸刺絡脈者, 必刺其結上, 甚血者雖無結, 急取之以寫起邪而出其血, 留之發爲痺也¹⁸⁾.'라 하여 큰 관절을 지나지 못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絡脈이 해부 조직으로서의 정맥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는 앞의 '絡脈의 발생과정 추론'에서 언급한대로 絡脈의 개념이 체표정맥의 변화에서 출발하였지만 당시에는 해부학적 지식의 부재로 체내의 혈액순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經絡개념의 발전이 해부학적 지식보다는 실제 임상 경험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絡脈을 현대 해부학의 정맥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또 하나의 큰 차이는 絡脈에는 是動病과 所生病이 없다는 것이다. 먼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是動病과 所生病을 略述하겠다.

是動病에 대해서 金善鎬¹⁹⁾는 '是動病의 정의는 맥이 動, 즉 뛰면서 나타나는 병'이라고 하여 해당 경맥의 맥이 변동할 때 나타나는 질병으로 보았다. 黃²⁰⁾은 "經脈 개념이 형성되기 이전에 체표맥상의 변화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 이 脈口處는 고정된 치료부위인 腧穴로 변천하였다. …… 옛 사람들은 인체 상하의 특정부위 사이에 내재적으로 연계된 현상을 발견 …… 인체의 상하를 연계시킨 經脈개념이 형성된 이후 腕踝 부위인 脈口の 맥진병후는 매우 자연스럽게 상응하는 經脈病候, 즉 이른바 是動病으로 되었다."라고 하고 있다. 즉 是動病은 해당 經脈의 脈動處에서 異常脈이 나타날 때의 病候로부터 출발한 것²¹⁾으로 是動病은 맥동과 관련이 있고 이는 經脈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시각적 변화를 관찰해서 형성된 絡脈에는 是動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사료된다.

所生病은 '자주 나타나는 체표의 병변 및 몇몇 내장 병증을 經脈에 따라 분류²²⁾'한 것이다. 絡脈의 경우 그 유주가 經脈에서 분출되어 독자적 방향을 가지기도 하나, 일부 經脈 유주를 그대로 차용하기도 한다. 즉 絡脈 유주는 經脈에 완전히 독립적이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絡脈에는 순행하는 부위의 체표 병변을 반영²³⁾한 所生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신을 연계하는 經脈에 다양한 질병군을 經脈 부위로 분류한 것이 所生病인데, 絡脈의 유주노선은 전신을 모두 연계하지 못하고 상당부분을 '經脈' 유주 영역에 의지하기 때문에 絡脈에 所生病은 존재할 수가 없다.

絡脈과 經脈을 순행체계로 구분하기도 한다. 『靈樞·脈度篇』을 보면 '經脈爲裏 支而橫者爲絡²⁴⁾'이라 하여 絡脈의 순행특징을 橫으로 보고 있고, 『醫學入門·經穴起止篇』에도 마찬가지로 '經, 徑也. 徑直者爲經, 經之支派旁出爲絡²⁵⁾.'라 하여 絡으로 나가는 것을 絡

으로 보았다. 『難經本義』에도 '直行者 謂之經 傍出者 謂之絡 經猶江漢之正流 絡則沱潛之支派²⁶⁾.'라 하여 옆으로 나오는 것을 絡으로 판단하였다. 글자의 의미로도 經脈이란 세로[縱]의 맥을 의미하고 몸을 세로로 달리는 주요한 맥을 가리킨다. 그것에 대해 경맥으로부터 나뉘어 옆으로 나와 있는 지맥을 絡脈이라 하고, 둘을 합쳐서 經絡이라 칭한다²⁷⁾.

이는 앞서 '絡脈의 발생과정 추론'에서 서술한 것처럼 絡脈의 주요작용이 十二經脈의 陰陽表裏經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²⁸⁾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經絡學說의 통합과정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3. 十五絡脈의 구조

1) 일반구조

十五絡脈은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十二經脈의 絡穴에서 갈라져 나온 十二絡脈과 任脈과 督脈의 絡脈 2개, 脾之大絡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經脈之絡 14개(十二絡脈과 任脈과 督脈의 絡脈 2개)와 五臟之絡 하나(脾之大絡)²⁹⁾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런데 十五絡脈에 구성에 대해서 『內經』과 『難經』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難經·二十六難』에서는 任·督脈의 絡脈대신 陰蹻脈과 陽蹻脈의 絡脈인 陰蹻之絡과 陽蹻之絡을 합쳐 十五絡脈을 구성³⁰⁾한다.

또 胃의 大絡인 虛里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래서 胃의 絡脈까지 합하여 十六絡脈이나, 脾와 胃는 표리관계이므로 습관상 十五絡脈이라고 하고, 十二經脈의 氣와 합하여 二十七氣가 전신을 순환한다³¹⁾고 보는 관점도 있다.

任·督脈 陰蹻脈과 陽蹻脈 絡脈에 대한 이견, 그리고 胃之大絡에 대해서는 본론 4장에 서술하겠다.

2) 十五絡脈의 순행방향

黃³²⁾에 따르면 먼저 四肢部에 絡脈을 진단하고 刺灸하는 곳이 絡脈의 起點이 되고, 병증을 진단·치료하는 것은 자연히 絡脈의 병후가 되었고, 따라서 초기 絡脈의 순행방향 역시 모두 下에서 上으로 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실제 十五絡脈의 모습을 살펴보면 四肢에서 上行하는 모습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 또 중요한 특징으로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表裏經脈으로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靈樞·經脈篇』에 나온 十五絡脈의 순행방향은 다음과 같다.

“手太陰之別, 名曰列缺, 起于腕上分間, 並太陰之經直入掌中, 散入于魚際. …… 別走陽明也. 手少陰之別, 名曰通里, 去腕一寸半, 別而上行, 循經入于心中, 繫舌本, 屬目系. …… 別走太陽也. 手心主之別, 名曰內關, 去腕二寸, 出于兩筋之間 別走少陽 循經以上, 繫于心包, 絡心系. 手太陽之別, 名曰支正, 上腕五寸, 內注少陰, 其別

17) 金善鎬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68-169.

18) 金善鎬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69.

19) 상수의학회편집부. 길잃은 한의학 지도를 찾다. 대전: 주민출판사; 2016. p. 239.

20)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243-244.

21)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종려나무; 2015. p. 79.

22)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243-244.

23) 전국한외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종려나무; 2015. p. 79.

24) 金善鎬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220.

25) 李樞. 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 257.

26) 金善鎬 編譯. 改訂版 懸吐完譯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49.

27) 야마다 케이지. 중국 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2. p. 57.

28)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78.

29)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574.

30) 김태한, 임윤경. 十五絡脈의 종류와 분포특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2):29-38.

31)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75.

32)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591.

者, 上走肘, 絡肩髃, 手陽明之別, 名曰偏歷, 去腕三寸, 別入太陰, 其別者, 上循臂, 乘肩髃, 上曲頰偏齒, 其別者, 入耳合于宗脈. 手少陽之別, 名曰外關, 去腕二寸, 外繞臂, 注胸中, 合心主. 足太陽之別, 名曰飛陽, 去踝七寸, 別走少陰. 足少陽之別, 名曰光明, 去踝五寸, 別走厥陰, 下絡足跗. 足陽明之別, 名曰豐隆, 去踝八寸, 別走太陰; 其別者, 循脛骨外廉, 上絡頭項, 合諸經之氣, 下絡喉喑. 足太陰之別, 名曰公孫, 去本節之後一寸, 別走陽明, 其別者, 入絡腸胃. 足少陰之別, 名曰大鍾, 當踝後繞跟, 別走太陽, 其別者, 并經上走于心包, 下外貫腰脊. 足厥陰之別, 名曰蠡溝, 去內踝五寸, 別走少陽, 其別者, 經脛上臑, 結于莖. 任脈之別, 名曰尾翳, 下鳩尾, 散于腹. 督脈之別, 名曰長強, 挾脊上項, 散頭上, 下當肩胛左右, 別走太陽, 入貫脊. 脾之大絡, 名曰大包, 出淵腋下三寸, 布胸脅³³⁾.”

위의 十五絡脈 순행에서 任脈과 督脈의 絡脈 및 脾之大絡은 十二經脈의 絡脈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이것도 任·督脈의 絡과 脾之大絡이 다른 絡脈과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에 대해서 본문 4장에 서술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보면, 十五絡脈은 피부에 드러난 혈관 개념에서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인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으로 발전하였다. 다시 말해 經絡學說의 발전 과정에서 인체라는 하나의 氣가 충만한 공간인 感應場³⁴⁾을 살피는 經絡적 관점, 즉 縱적인 經脈을 기준으로 經脈간의 연결을 橫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는 연계, 소통이 주로 六氣의 氣로 반대의 기능을 가지는 표리경맥으로 이루어진 것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즉 太陰·陽明의 燥濕, 少陰·太陽의 寒熱, 厥陰·少陽의 風火(緩急)로서 반대 기능을 발휘하는 표리의 經脈으로 流注하여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이를 통해 絡脈의 虛實로 구분된 病症을 치료하는 經穴(絡穴)³⁵⁾로 발전된 것으로 사료된다.

4. 十五絡脈 성립에 대한 象數學的 고찰

李³⁶⁾는 經絡學說의 형성에 대해 ‘經脈개념이 탄생하고, 이 線들이 독립된 채로 있는 것이 아니고, 陰陽五行의 相生·相剋관계에 의하여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이 線을 연결시키고 陰陽과 五行을 도입하여 현재의 經絡의 면모를 갖추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經絡學說은 ‘陰陽五行學說이 醫學分野에 들어오면서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인식 아래 人體現狀을 이해하고자 한 總結’이라고 말한다. 즉 陰陽五行學說이 經絡學說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것이다.

야마다 케이지³⁷⁾는 陰陽十一脈灸經과 足臂十一脈灸經의 脈 명칭 변화는 三陰三陽說의 입장에서 명칭이 통일되면서 나타난 것이며, 『靈樞·經脈篇』에 手厥陰脈을 덧붙인 것 역시 三陰三陽說의 입장을 완성시키기 위함이라 주장하면서 역시 陰陽學說의 구체적 영향을 언급한다.

黃³⁸⁾도 ‘陰陽學說이 의학영역에 광범위하게 운용됨에 따라 수족 腕踝部에서 맥진하는 脈과 刺灸하는 穴에 모두 太陽·陽明·少陽·太陰·厥陰·少陰의 三陰三陽으로 명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十二經脈의 출현이 당시 經脈의 숫자가 12개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는 경맥을 ‘三陰三陽으로 명명함으로써 단지 12개의 맥만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³⁹⁾’이라며 陰陽學說이 經絡學說에 끼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다.

추가적으로 十二經脈의 형성에 대해 “十二月卦에 배속시켜 經脈의 連環을 설정함으로써 經脈의 수량에 있어서 12개를 만족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12를 天의 大數로 보아 변동시킬 수 없었다. 따라서 經脈의 숫자가 12보다 부족하면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12를 초과하면 또한 제거하여 하나의 부류를 세웠다⁴⁰⁾.”고 말한다. 즉 十二經脈의 형성에 陰陽五行學說, 즉 象數學이 작용했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서론에 언급한 것처럼 『易』은 전국시대 사상과 학문의 세계에 공유되는 보편 철학이었으며, 의사들 또한 이를 토대로 지식을 체계화하였다. 또한 구체적으로 十二經脈의 발달사에 끼친 영향을 비추어보았을 때 十五絡脈 역시 象數學的 관점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필자는 十五絡脈 성립에 대해 象數學的으로 분석하여 3가지 의미를 얻었고, 이를 바탕으로 十五絡脈의 이견에 대해 고찰하였다.

1) 二十七數의 의미(12+15)

먼저 27數와 관련된다. 『靈樞·九鍼十二原』에 보면 ‘五藏五腑, 五五二十五腑; 六府六腑, 六六三十六腑, 經脈十二, 絡脈十五, 凡二十七氣以上下, 所出爲井, 所溜爲榮, 所注爲腧, 所行爲經, 所入爲合, 二十七氣所行, 皆在五臟也⁴¹⁾.’라 하여 十二經脈과 十五絡脈을 더한 ‘27’에 대해 언급하였다. 黃⁴²⁾도 앞서 언급한 대로 ‘經脈의 숫자는 三陰三陽의 命名法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12를 넘을 수 없으며, 絡脈의 숫자도 시종 ‘15’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絡脈이 15개인 이유를 ‘27의 숫자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唐代 초기 명의인 양현조(楊玄操)가 지은 『難經集注·二十三難』의 해석으로 부연하였다. “經脈이 12개, 絡脈이 15개로 모두 27氣인데, 이로서 3×9의 27數를 본받았다. 하늘에 9성이 있고, 땅에 9주가 있고, 사람에게 9규가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한 부분이다. 즉 27數가 가지는 의미로서 經脈과 絡脈의 數의 합을 27로 정하였고, 十二經脈은 三陰三陽과의 관련성으로 12로 고정되었으므로 ‘27-12=15’로 十五絡脈이 나온다는 주장이다.

2) 洛書의 十五數 의미

둘째, 圖書에서 十五絡脈 15數의 象數學的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앞서 經絡學說의 형성에 陰陽五行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언급한 바 있다. 陰陽五行의 이론은 河圖와 洛書에 완전하게 제시되고 있다. 河圖와 洛書는 數로 이루어져 있는데, 數는 동양에서 그 자체로 철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⁴³⁾. 韓東錫⁴⁴⁾도 “先聖들은

33) 金善鎬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70-174.

34) 야마다 케이지. 중국 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서울: 사이언스북스; 2012. p. 107-109.

35) 이봉효, 임성철, 이경민, 김재수, 이지혜, 정태영. 15絡脈의 病症에 關한 文獻의 考察. 東西醫學. 2009;34(2):1-9.

36)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臟腑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33.

37) 야마다 케이지. 중국의학의 기원. 경기도: 수퍼노바; 2016. p. 378-379.

38)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289.

39)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372.

40)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372-373.

41) 金善鎬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4.

42) 黃龍祥. 中國針灸學術史大綱. 서울: 법인문화사; 2005. p. 575.

43)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1995;3(2):103-124.

河圖와 洛書에서 數象을 연구했으며 그것을 개발하여서 卦象으로 발전시켰다.”고 한다. 이처럼 河圖와 洛書는 동양학, 象數學의 근본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河圖와 洛書의 구성과 의미는 무엇이고 또한 河圖와 洛書에 나타나는 15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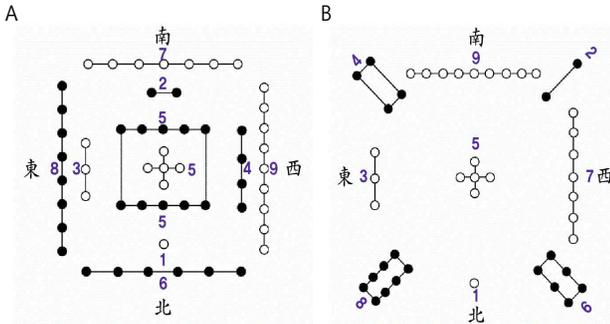


Fig. 1. A. Hado (河圖). B. Laksó (洛書)

河圖는 5·10(土)을 본체로 하여 네 정방에 배치된 1·6(水), 2·7(火), 3·8(木), 4·9(金)의 五行原理를 위주로 道의 근원적 구조 원리를 상징하고 있으며, 洛書는 5를 본체로 서로 마주 보고 있는 1·9(太陽), 2·8(少陰), 3·7(少陽), 4·6(太陰)의 사상작용을 위주로 道의 생성변화원리를 상징하고 있다⁴⁵⁾(Fig. 1A).

河圖와 洛書에는 모두 15數가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河圖의 가운데에 위치한 5와 10을 더하면 15數가 된다. 그리고 洛書에는 가로와 세로, 그리고 대각선의 모든 변에 있는 수의 합이 15가 된다. 즉 洛書는 魔方陣을 이룬다(Fig. 1B).

그러면 15數의 의미는 무엇인가? 윤⁴⁶⁾에 따르면 ‘15數는 宇宙 生命의 根源處이며 創造의 本源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洛書 각 변의 수의 합이 15가 된다는 것은 ‘現象世界는 宇宙 造化의 根源자리를 그대로 反映하고 있음을 證明하고 있는 것’이라 한다. 그리고 ‘15가 變化의 軸이며 中心이 되는 理由는 生數 1,2,3,4,5의 합이 15가 되며 成數中 太陽·太陰數 9·6의 합이 15가 되며 少陽·少陰數 7·8의 합이 15가 되는 데서도 살펴볼 수가 있다. 즉 四象數의 各各의 합이 15가 된다는 것은 現象界의 變化가 宇宙의 本體에 뿌리를 박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15數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단, 河圖는 15수가 本體가 되고, 洛書는 15로 作用하므로 體用의 입장에서 보면 體用河圖·用洛書의 구조를 가진다⁴⁷⁾. 정리하면 15는 體用관계인 河圖·洛書의 바탕으로 우주 본체이자 작용에 해당하는 수로서, 변화의 중심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河圖의 中心數의 합이 15이고 洛書의 縱橫 대각선의 합이 15라는 것은 本體와 現象이 如一하며 天地의 모든 變化가 15數에 매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⁴⁸⁾이다. 직관적인 이해에서는 洛書의 魔方陣 모습은 어

느 방향으로 합해도 15가 되는 모양이다. 즉 하나의 공간 안에서 四通八達의 의미를 갖춘 것이 15數의 의미이다.

十五絡脈은 十二經脈의 陰陽表裏經의 연계를 강화⁴⁹⁾하고 頭背部(督絡)와 腹部(任絡), 血絡을 統率(脾之大絡)⁵⁰⁾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十五絡脈의 성립 과정에 象數學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고, 數理的 의미에서 15數를 차용하였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는 15數로써 魔方陣을 이루어 四通八達 연락하는 洛書를 통해 인체의 각 부위 사방팔방을 상호 연결·교통하는 絡脈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十二經脈의 絡穴에서 갈라져 나온 十二絡脈에 연결 소통하는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3가지 絡脈이 추가되었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으며, 그 絡脈은 任·督脈의 絡脈과 脾之大絡이었다.

3) 三陰三陽과 三才(12+3)

셋째, ‘12+3’의 구조로 분석할 수 있다. 앞서 十五絡脈에 15數를 象數學적으로 차용하게 되면서 十二絡脈에 任脈과 督脈의 絡脈, 脾의 大絡의 3가지 絡脈이 추가된 것이라 추론하였다. 그리고 이 3개의 絡脈은 十五絡脈의 의미를 더욱 강화했을 것이다. 혹은 絡脈의 의미 강화를 위해 十二絡脈에 3가지 絡脈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그 결과가 15數였다고 추론된다.

그렇다면 象數學적으로 3의 의미는 무엇인가? 1에서 9까지의 數理에서 3은 天地人으로 造化의 作用(統一)⁵¹⁾을 뜻하며, 生命 構成의 作用數⁵²⁾가 된다. 김⁵³⁾은 象數學의 河圖·洛書·伏羲八卦·文王八卦에 宇宙의 原理와 生命의 理致가 내재되어 있는데, 그 구조와 운행은 天地人 三才로 분석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우주만물을 분석하는 틀을 삼원적 구조로 제시⁵⁴⁾하였다. 정리하면 3은 生命 構成의 作用數이면서 天地人 三才를 의미하고, 사람을 비롯한 우주만물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할 수 있는 數이다. 여기서 天은 정신, 시간성을 말한다. 地는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공간적 요소를 의미한다. 人은 天과 地를 이어주는 존재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작용하는 작용력⁵⁵⁾을 말한다.

필자는 十五絡脈에서 十二經絡을 제외한 任·督脈의 絡脈, 脾之大絡의 3絡脈을 3의 數理를 바탕으로 분석·고찰하였다.

(1) 督脈의 絡脈

『靈樞·經脈篇』에 보면 督脈의 絡脈은 ‘名曰長強, 挾脊上項, 散頭上, 下當肩胛左右, 別走太陽, 入貫膂⁵⁶⁾.’한다. 즉 督脈의 別絡은 長強에서 갈라진 후 머리까지 올라가 흩어져 퍼지면서 갈라져 척주 양쪽의 足太陽膀胱經으로 가게⁵⁷⁾ 된다. 정리하면 기치는 인체 後

44)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2003. p. 175.
 45) 林炳學, 郭馬哲. 『주역』의 河圖洛書論과 方圓의 易學的 의미. 동서철학연구. 2014;74:31-52.
 46)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1995;3(2):103-124.
 47) 송재국. 周易의 ‘河圖·洛書’에 대한 철학적 이해. 철학논총. 2002; 29: 353-368.
 48) 윤창열. 하도와 낙서에 나타난 음양오행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한의학

연구소. 1995;3(2):103-124.
 49)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78.
 50) 전국한의학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경락경혈학 교재편찬위원회. 大學經絡經穴學總論. 대전: 종려나무; 2015. p. 89.
 51) 김완희, 김광중. 한의학의 형성과 체계. 대구: 중문; 1991. p. 59-60.
 52) 한규성. 易學原理講話. 서울: 동방문화; 1989. p. 196.
 53) 김병수. 河圖·洛書·先天八卦·後天八卦의 상호 유기적 관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2):379-386.
 54) 김병수. 삼원적 구조로 본 상수역학 체계 - 四象·五行·六氣를 중심으로 -.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5):1065-1071.
 55) 김병수. 河圖·洛書·先天八卦·後天八卦의 상호 유기적 관계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7;21(2):379-386.
 56) 金善鎬 編著. 善平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74.
 57)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76.

면에 있으면서 위로 퍼지며 이는 뇌, 척수와 일치한다. 즉督脈의絡脈 가지는上·後面·腦의 개념은 앞서 언급한 天이 의미하는 '정신'과 연관된다.

(2) 任脈의絡脈

『靈樞·經脈篇』에 보면 任脈의絡脈은 '名曰尾翳, 下鳩尾, 散于腹⁵⁸⁾.'한다. 즉督脈의絡脈과 반대로 인체 前面에서 기시하여 下, 즉 복부로 퍼지게 되는데, 이는 복부 장기와 연관된다. 복부에는 五臟 中 肝脾腎과, 六腑가 위치하여 땅에서 자라는 각종 음식물을 소화시켜 신체를 영양하는 역할을 한다. 또 '任'은 妊娠의 의미를 가지는데⁵⁹⁾, 任脈의絡脈이 퍼지는 복부의 아래 부위는 生殖과 관련된다. 즉 任脈의絡脈이 퍼지는 下·前面·腹部의 인체작용은 물질적인 것을 상징하는 地의 의미와 연관된다.

(3) 脾之大絡

脾之大絡은 『靈樞·經脈篇』에 '名曰大包, 出淵腋下三寸, 布胸脅⁶⁰⁾.'라 하였다. 겨드랑이 아래, 즉 인체의 側面에서 기시하여 胸脇으로 퍼지게 되는데, 여기는 五臟 中 心肺가 존재하는 곳이다. 心肺는 橫隔膜 위에 위치하는 장부로 이 둘은 肺循環으로 연결되어 있다. 폐는 외부 산소를 받아들이고, 심장으로는 복부에서 소화시킨 영양분이 들어오게 된다. 즉 胸部에서는 天氣를 받아들이며 또한 음식물 섭취를 통해 복부에서 흡수된 地氣도 모이게 된다. 그리고 심장은 이 둘을 머리와 몸통, 사지로 혈관을 통해 보내는 역할을 한다.

먼저 위치적으로 脾之大絡의 起始穴인 大包는 長強(督脈의絡脈 起始)의 後面과 鳩尾(任脈의絡脈 起始)가 위치한 前面의 사이인 側面에 있다. 또 분포부위는 督脈의絡脈이 분포하는 뇌(上)와 任脈의絡脈이 분포하는 복부(下)의 가운데인 胸部에 존재한다. 그리고 흥부의 작용은 天地의 기운을 모아서 머리와 복부를 포함한 전신에 보내주는 것이다. 이러한 脾之大絡이 가지는 의미는 天과 地를 이어주는 존재인 人과 연관된다.

이상 고찰해본 바 任·督脈의絡脈, 脾之大絡의 3絡脈은 天地人 三才의 의미와 관련이 있다. 또한 起始는, 任脈의絡脈은 前面, 督脈의絡脈은 後面, 脾之大絡은 側面에 위치한다. 분포 부위는, 任脈의絡脈은 下, 督脈의絡脈은 上, 脾之大絡은 中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任·督脈의絡脈은 중앙에 위치하고, 脾之大絡은 좌우 측면에 존재한다. 이로써 3絡脈은 上下·前後·左右를 다 아우르고 있다(Table 1).

또한, 天地로 任·督脈을 구분하여 보면 經絡의 上下(天地)는 後面이 天이고, 前面이 地임을 알 수 있다.

Table 1. Collateral of Conception Channel (任脈), collateral of Governor Channel (督脈) and great collateral of the spleen (脾之大絡) categorized as samjae (三才)

	督脈의絡脈	任脈의絡脈	脾之大絡
三才	天	地	人
絡脈 分布	上	下	中
絡穴	長強	鳩尾	大包
絡脈 部位	後面(中央)	前面(中央)	側面(左右)

58) 金善鎬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73.

59)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100.

60) 金善鎬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74.

공간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서 上·下, 左·右, 前·後, 사이(間)를 생각할 수 있고⁶¹⁾, 동양학에서는 이러한 공간질서를 六합이라 표현했다⁶²⁾. 『素問·生氣通天論』에도 “天地之間, 六合之內⁶³⁾”라 하여 天地 사이의 공간을 六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天地 사이의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정리하면 3絡脈은 각각 天地人 三才의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공간 질서를 나타내는 六합의 의미를 가진다. 즉 十五絡脈의 15數는 '12+3'(三陰三陽과 三才)의 구조로 분석하면 十二經脈의絡穴에서 갈라져 나온 十二絡脈에 天地人 三才로 六합의 의미를 포함하는 3絡脈을 추가함으로써 연결·교통하는絡脈의 역할을 인체 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4) 象數學的 해석을 바탕으로 十五絡脈에 대한 이견 고찰

(1) 陰蹻之絡·陽蹻之絡

『難經』에서는 『內經』과 十五絡脈 구성에 대해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難經·二十六難』에는 “經有十二 絡有十五 餘有絡者 是何等絡也. 有陽絡 有陰絡 有脾之大絡. 陽絡者 陽蹻之絡也. 陰絡者 陰蹻之絡也⁶⁴⁾.”라 하여 陰蹻脈과 陽蹻脈의絡脈인 陰蹻之絡과 陽蹻之絡으로 十五絡脈을 구성한다. 이는 『內經』이 任·督脈의絡脈으로 十五絡脈을 구성한 것과 다르다.

우선 이견이 있는 4가지 奇經의 역할은 무엇인가? 督脈은 전신의 陽經 氣血을 통솔·감독하며 元陽을 主持하고 腦와 脊髓를 支持하고 정신활동에 관여한다. 任脈은 陰經 氣血을 총괄하고 元陰을 主持한다. 陰蹻脈과 陽蹻脈은 陰陽을 交通하여 睡眠을 조절⁶⁵⁾한다.

陰蹻脈과 陽蹻脈이 陰陽을 交通하는 역할을 하므로 陰陽表裏經을 연계하는絡脈에 적합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絡脈이 陰陽表裏로 연계하는 대상이 經脈이다. 十二經脈의絡脈을 보면 陰陽·六氣의으로 반대의 經脈을 연결하고 있다. 즉絡脈이 갈라져 나오는 해당 經脈의 陰陽 交通 여부는 핵심사항이 아니다. 오히려 經脈의 성격이 서로 반대일 때, 연계하는絡脈의 의미가 더 크다고 사료된다. 즉 任·督脈은 각각 元陰·元陽을 主持하여 對待를 이루고 있으므로絡脈을 통한 연계의 필요성이 陰蹻脈과 陽蹻脈에 비해 더 크다.

또한 필자는 위에서 十五絡脈의 15數가 洛書 15數의 의미와 '12+3' 구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서술했다. 洛書는 15數로써 魔方陣을 이루어 四通八達하는 뜻이 있으므로 十五絡脈의 성립 과정에 象數學的으로 15數를 차용하면서絡脈의 연계하는 의미를 數理로 나타냈고, 이를 위해 十二經脈의絡脈에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3絡脈을 추가한 것으로 추론했다. 이에 '12+3' 구조로 분석, 추가된 3絡脈은 3數로써 天地人 三才의 뜻을 가질 것이라 판단하고 그 관련성을 찾았다. 이는 또한 六合 공간 질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밝혔다. 즉 十五絡脈은 성립 과정에서 15數를 차용, 十二經脈의絡脈에 天地人 三才의 3絡脈을 추가하여 연결·교통하는絡脈의 역할

61) 나가노 하지무. 공간과 인간. 서울: 도서출판 국제; 1999. p. 89.

62) 김용찬, 강정수. 空間의 개념과 九宮의 공간모델화에 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2;16(5):851-856.

63) 李慶雨 翻譯. 黃帝內經素問 上. 서울: 여강출판사; 1999. p. 64.

64) 金善鎬 編譯. 改訂版 懸吐完譯 難經本義.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49.

65)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99-102.

을 강조하고 그 기능을 인체 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뜻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즉 이러한 象數學的 의미로 고찰해보면 天과 관련된 督脈의 絡脈과 地와 관련된 任脈의 絡脈이 十五絡脈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외에도 김⁶⁶⁾은 “任·督脈은 十二經脈과 같이 獨自의인 穴位를 가지고 있는 반면 陰蹻脈과 陽蹻脈은 獨自의인 穴位를 가지고 있지 않고 別出되는 穴位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후대 의가의 대다수가 『內經』의 이론을 따르고 있다는 것으로 『內經』의 이론이 합당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여 마찬가지로 任·督脈의 絡脈으로 十五絡脈을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을 주장한 바 있다.

(2) 胃之大絡 - 十六絡脈說

十五絡脈에 胃之大絡을 더하여 十六絡脈이라고도 한다. 또한 胃之大絡을 포함하여 十六絡脈이 되나 脾와 胃는 표리관계이므로 습관상 十五絡脈이라 稱⁶⁷⁾하기도 한다. 胃之大絡인 虛里는 좌측의 젓가슴 아래에 분포되어 그 脈氣가 끊임없이 拍動하여 손으로 촉진되는 것으로 胃腹部에서 위로 橫膈膜을 관통하여 肺臟으로 가서 전신의 絡脈을 營養⁶⁸⁾한다.

胃之大絡은 『素問·平人氣象論』에 기재되어 있고 『靈樞·經脈篇』에는 “凡此十五絡者⁶⁹⁾”라 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다. 김⁷⁰⁾은 胃의 氣血循行과 宗氣와의 관련성을 위해 확대해석한 것으로 十六絡脈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十五絡脈을 ‘12+3’으로 분석하여 기술한 것처럼 3의 數理는 天地人을 나타낸다. 天地人 三才의 관점에서 人은 天과 地를 이어주는 의미를 갖고, 이는 中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中은 만물을 생하는 中인 五와 統一하는 中인 十이 있다. 五를 中으로 하는 數象은 변화의 생장면을 나타내며, 十을 中으로 하는 數象은 收藏을 나타내며 形氣를 통일하는 존재⁷¹⁾로 본다. 五와 十은 모두 土에 해당되며, 한의학에서 五는 陽의 土이므로 胃를 상징하고, 十은 陰의 土이므로 脾를 상징한다. 즉 十六絡脈은 天地人 三才의 관점에서 人이 가지는 中의 의미에 따라 脾之大絡 외에 胃之大絡을 추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정밀히 살펴보면 여기서 人은 天地를 연결시켜주는 통합의 의미에 조금 더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그러므로 象數學的으로도 통일하는 의미인 十數의 中이 상징하는 脾臟과 관련된 脾之大絡만을 포함한 十五絡脈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 虛里의 경우 脈動이 촉진 되는 점도 일반적인 絡脈의 특징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絡脈學說은 실제 임상 경험에서 출발한 것으로써 脈의 형태, 色澤의 진단과 관련되어 발생하였기 때문에 絡脈은 脈動의 변화와

관련된 是動病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 流注의 상당부분을 ‘經脈’의 流注 영역에 의지하므로 질병군을 經脈 부위로 분류한 所生病이 존재하지 않는다.

十五絡脈의 순행방향은 『靈樞·經脈篇』에서 대부분 下에서 上으로 진행되는데, 다른 의서에 直行하는 것을 經脈, 橫行하는 것을 絡脈으로 표현한 경우가 있다. 이는 첫째 絡脈의 주요작용이 十二經脈의 陰陽表裏經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으로 추론된다. 둘째 經絡學說의 통합과정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十五絡脈의 15數에 대해 象數學的으로 고찰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十二經脈과의 숫자의 합을 二十七氣에 맞춘 것으로 추론된다. 둘째, 河圖와 洛書를 바탕으로 한 15數의 의미에 일치시킨 것이라 추론된다. 특히 15數로 魔方陣을 이루어 四通八達을 연락하는 洛書를 통해 絡脈의 의미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十二絡脈에 天地人 三才와 대응되는 3絡脈을 더해 十五絡脈이 되었다고 추론된다. 추가된 3絡脈은 六슴의 공간 의미를 가졌고, 이는 연결·교통하는 絡脈의 역할을 강조하고 十二經脈의 絡脈을 인체 공간 전체로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위 3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위의 象數學的의 고찰을 바탕으로 陰蹻脈 陽蹻脈 絡脈說을 살펴본 결과 『內經』의 任·督脈의 絡脈이 十五絡脈에 포함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象數學的으로 十六絡脈說을 살펴본 결과 胃之大絡을 제외한 十五絡脈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상수의학회(Association of Sang-Su Medicine, ASSM)에서 얻은 학문적 단서에 힘입어 진행하였음을 밝힙니다.

References

1. Meridians & acupoints compilation committee of Korean Oriental Medical colleges. Principles of meridians & acupoints : a guidebook for college students. Daejeon: JongRyeoNaMu Publishing Co: 2015.
2. Lee HI, Kim YS, Kim YS. Clinical Study of meridians & acupoints. Seoul: BUBIN PUBLISHERS CO.; 2000.
3. Kim TH, Yim YK. Review on the Classification and Distribution of Fifteen Main Collaterals. The Korean Journal of Meridian & Acupoint. 2006;23(2):29-38.
4. Keiji Yamada. How Chinese Medicine started. Seoul: ScienceBooks; 2012.
5. Liao MC, Kang XW, Liang WX. History of IChing philosophies. Seoul: Yemoon; 1994.
6. Editorial department of Association of Sang Su Medicine. Finding Maps: for Korean Medicine Strayed. Daejeon: JuminD&C; 2016.
7. Huang LX. The abstract of academin history of Chinese Acupuncture & Moxibustion. Seoul: BUBIN PUBLISHERS

66) 김태한, 임윤경. 十五絡脈의 종류와 분포특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2):29-38.

67) 전국한의학대학교 생리학 교수. 改訂版 東醫生理學. 서울: 집문당; 2008. p. 401.

68) 이학인, 김양식, 김연섭. 臨床經絡腧穴學. 서울: 法仁文化社; 2000. p. 75.

69) 金善鎬 編著. 善乎 靈樞 上. 대전: 주민출판사; 2003. p. 174.

70) 김태한, 임윤경. 十五絡脈의 종류와 분포특징에 관한 문헌적 고찰. 대한경락경혈학회지. 2006; 23(2):29-38.

71) 한동석, 우주변화의 원리. 서울: 대원출판; 2003. p. 201.

- CO.: 2005.
8. Kim SH compiled. Sun Ho Miraculous Pivot(volume 1). Daejeon: JuminD&C; 2003.
 9. Li Chan. Introduction to Medicine. Seoul: BUBIN PUBLISHERS CO.; 2009.
 10. Kim SH Translated. Genuine Meaning of the Classic of Difficult Issues. Daejeon: JuminD&C; 2009.
 11. Lee BH, Lim SC, Lee KM, Kim JS, Lee JH, Joung TY. A review study on the diseases of 15 Lacmaek. The journal of East-West Medicine. 2009;34(2):1-9.
 12. Keiji Yamada. The Origin of Chinese Medicine. Gyeonggi: Super Nova; 2016.
 13. Yoon CY. A Study on Yin-yang and five-phase theory in Hado and Lakseo.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Medicine of Daejeon University. 1995;3(2):103-24.
 14. Han DS. Principle of Cosmic Changes. Seoul: Daewon; 2003.
 15. Lim BH, Kwock WC. The Philosophical Meaning of Square and Circle(方圓). Being Based on the Hetu-Luoshu(河圖洛書) of the Book of Changes. Studies in Philosophy East-West. 2014;74:31-52.
 16. Song JK. Understanding of The Book of Change on 'Hot'u' and 'Lushu'. Journal of the New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2002;29:353-68.
 17. Kim WH, Kim KJ. Formation and structure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Daegu: Jungmun; 1991.
 18. Han KS. Lecture about Principle of IChing. Seoul: Dongbang Culture; 1989.
 19. Kim BS. Study on the Organic Relations among Hado, Laksō, a Priori Eight Trigrams, and a Posteriori Eight Trigrams.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7;21(2):379-86.
 20. Kim BS. Asian Image-mathematics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ree Category.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7;21(5):1065-71.
 21. Hajimu Nakano. Space & Human. Seoul: KukjeBook; 1999.
 22. Kim YC, Kang JS. Study on the Concept of Space and Modeled Space of the Jiu-Gong.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2;16(5):851-6.
 23. Lee KW translated. Internal Classic-Plain Questions(黃帝內經素問) volume 1. Seoul: Yeokang; 1999.
 24. Faculties of Korean Medical Physiology in the Korean Medical Colleges. Korean Medical Physiology. Seoul: Jimmundang; 2008.